



유년부 약속

1. 예배시간 **10분 전**에 와요.
2. 예배시간 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해요.
3. 이 책을 **소중히** 여기며, 이 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요.
4.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요.
5. 예배를 드린 후 **주변을 정리**해요.

“이렇게 활용하세요.”



위드 - 이 책은 매 월의 주제에 따라 진행되는 유년부 교육 내용에 대한 책입니다.

Memory
Time

Memory Time
반 모임 때 선생님과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

Sweet
Time

Sweet Time -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 정하여서 주일에 배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GOD'S
TIME

God's Time -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QT입니다.

Morning
Time

Morning Time
아침 시간에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bed
time

Bed Time - 잠자기 전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 Morning Time과 Bed Time은 매 월 마지막 주에만 제공됩니다.

추천도서

추천도서
그 달의 주제에 맞는 읽기 좋은 책에 대한 소개입니다.

contents

❁ 9월 교육 내용	04
❁ 9월 첫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06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07
어린이 QT God's Time	08
❁ 9월 둘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18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19
어린이 QT God's Time	20
❁ 9월 셋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30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31
어린이 QT God's Time	32
❁ 9월 넷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42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43
어린이 QT God's Time	44
❁ 아침에 나누는 Morning Time	64
잠자기 전 나누는 Bed Time	65
❁ 9월 위드포토	66
❁ 9월 추천도서	68
❁ 9월 위드스티커	69
❁ 9월 교육활동지	71





암송 구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 1장 7절 -

♥첫째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 1장 7절)
*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움을 극복해요.

♥둘째주♥

“여리고 정복”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호수아 6장 2절)
*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 성을 정복했어요.

♥셋째주♥

“아이 성”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 7장 6절)
* 하나님께 감출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넷째주♥

“기브온의 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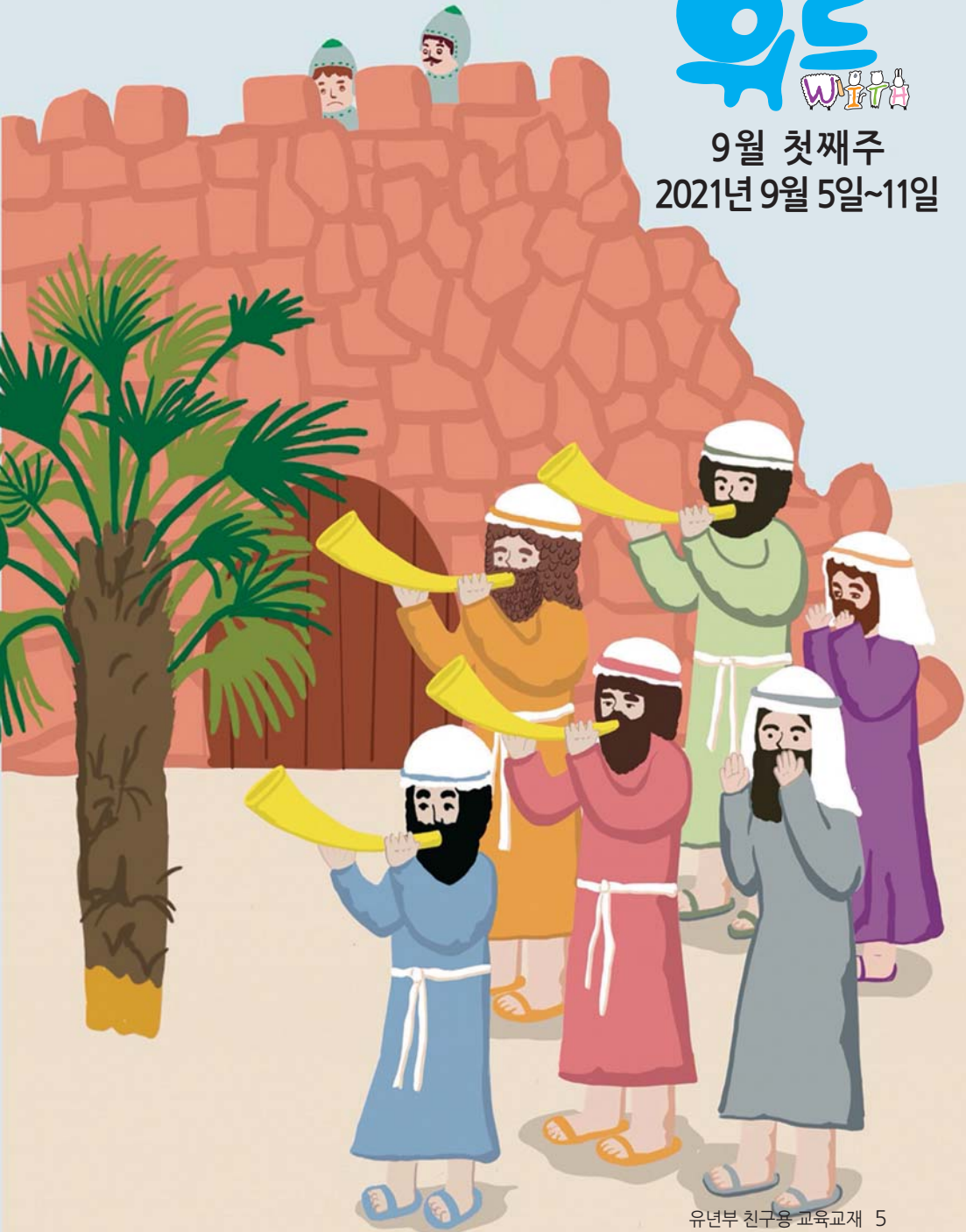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 10장 14절)
*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해요.

실천 내용

1. 이번 한 달 동안 여호수아서를 다 읽어보기
2.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해 보기



9월 첫째주
2021년 9월 5일~11일



Memory Time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째주

♥ 주제 : 여호수아

♥ 암송구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1:7

♥오늘의 주제 :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수아 1:1-9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움을 극복해요.

★ 말씀 나눔

①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수 1:1, 출 24:13)

○ ○ 의 후계자

②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나요? (7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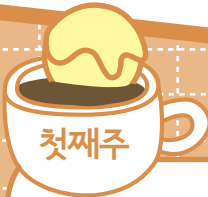
○ ▣

★ 교육활동 - “말씀 두루마리”

- ① 오늘의 말씀을 색지에 붙이고 색연필과 싸인펜으로 꾸며 보세요.
- ② 다 꾸미고 나면 서로에게 보여주며 말씀을 크게 읽어요.
- ③ 말씀을 지키기로 다짐하며 리본으로 묶어 말씀 두루마리를 완성해 보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주제 : 여호수아

♥ 암송구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나”

▷ 여호수아 1:7

♥ 오늘의 포인트 :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움을 극복해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하나님의 말씀으로 ▷ 여호수아 1:1~9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킨 지도자 모세가 죽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 후계자이자,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 할 사람으로 여호수아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담대하고 용감 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르거나, 전쟁을 위한 전술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었어요.

사실 가나안 땅에는 크고 강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어요. 여호수아에게 있어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감당하기 어렵고, 두려운 일 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힘든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기억하길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상황을 보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담대한 마음을 갖고 나아가길 원하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두렵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길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던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과도 함께해 주실 거예요.



Q 1 두렵고 힘든 상황에서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Pray 우리 가족이 언제나 말씀과 함께 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해주세요.

GOD'S TIME 1 첫째주

날짜: 2021. .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누가복음 9:11-17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1. 그러나 무리가 그것을 알고서, 그를 따라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또 병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고쳐 주셨다.
12. 그런데 날이 저물기 시작하니, 열두 제자가 다가와서, 예수께 말씀드렸다. "우리를 해쳐 보내어, 주위의 마을과 **농가**로 찾아가서 잠자리도 구하고 먹을 것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입니다."
13.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14. 거기에는 남자만도 약 오천 명이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한 오십 명씩 **떼**를 지어서 앉게 하여라."
15. 제자들이 그대로 하여, 모두 다 앉게 하였다.
16. 예수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시고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무리 앞에 놓게 하셨다.
17.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열두 **광주리**나 되었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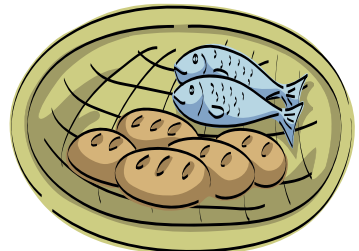
Check

Q. 단어사전

농가: 농사를 하는 사람의 집

떼: 사람의 무리

광주리: 바구니



with
관찰

1. 제자들은 얼마만큼의 먹을 것을 가지고 있었나요? (13절)

- 개

- 마리

2.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모두가 나눠서 배불리 먹고 얼마가 남았나요?
(17절)

- ① 열 광주리 ② 열한 광주리 ③ 열두 광주리 ④ 열세 광주리

with
생각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어요. 시간이 흐르고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무리들의 먹을 것과 잠자리가 걱정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어요.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 먹을 것을 구하게 하십시오.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빈 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어라' 말씀하시고 사람들 중에 먹을 것을 구하니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손에 들고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나눠 주시니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열 두 바구니나 남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with
결심

제자들의 생각으로는 빈들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제각각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과 잠잘 곳을 구하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방법은 제자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었지요. 아주 작은 양의 음식이었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 즉 마음과 몸을 모두 다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항상 우리를 살펴보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 주고 계세요. 나의 삶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나의 몸과 마음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 :

GOD'S TIME 2 첫째주

날짜 : 2021.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누가복음 9:18-27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8.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9. 그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0.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21.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셔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22.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날**에 살아 나야 한다."
23.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오너라."
24.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25.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26.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싸여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27.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들이 있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배척 : 따돌리거나 거부하여 밀어 내침

사흘날 : 3일 째 되는 날

이득 : 이익을 얻음

with
관찰

1.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였나요? (20절)

의

2.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고 빈 칸을 채우세요. (23절)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를 하고,

날마다 자기 를 지고, 나를 따라 오너라.”

with
생각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선지자가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말하였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지요.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예수님은)하나님의 그리스도 이십니다.”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시고,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with
결심

‘그리스도’란 ‘기름부음을 받은 자’, 즉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서 약속하신 우리를 구원하도록 이 땅에 보내주실 구원자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구원자 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했던 것이에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나의 말로 고백해 보세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기도 :

GOD'S TIME 3 첫째주

날짜 : 2021.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누가복음 9:28-36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희어지고 빛이났다.
-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 그들은 영광에 싸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그 두 사람을 보았다.
- 그 두 사람이 예수에게서 막 떠나가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 세 사람을 휩쌌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그 소리가 끝났을 때에,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여드레 : 8일



with
관찰

1.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 누구와 함께 계셨나요? (30절)

,

2. 구름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나요? 말씀을 읽고 빈 칸을 채우세요. (35절)

“이는 내 이요, 내가 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with
생각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고 눈부시게 빛이 났어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도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옆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일어난 제자들은 갑자기 예수님이 변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을 보고 놀랐어요. 그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with
결심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중 눈부시게 변화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하실 때 얻게 될 영광의 경험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지요. 이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된 오늘 나에게도 주시는 명령이에요. 예수님을 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되기로 결단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4 첫째주

날짜 : 2021.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누가복음 9:37-45 “믿음이 없는 제자들.”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38. 그런데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소리를 크게 내서 말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보아주십시오. 그 아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39.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그 아이는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또 귀신은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40.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청하였으나, 그들은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41.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 주어야 하겠느냐? 네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42. 아이가 예수께로 오는 도중에도, 귀신이 그 아이를 거꾸러뜨리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악한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낮게 하셔서,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43.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랐다. 사람들이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서 감탄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44.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45.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숨겨져 있었다. 또한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그에게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경련 : 근육이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떨거나 오그라드는 현상

세대 : 같은 시대에 사는 비슷한 나이의 사람 전체

with
관찰

1.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41절)

- ① 어리석은 사람들이여!
- ②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 ③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 ④ 예수님의 제자들이여!

2.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감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본문을 읽고 빈 칸을 채우세요. (44절)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예수님)는 사람들의 으로 넘어갈 것이다.”

with
생각

귀신들린 아들을 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말했어요. ‘선생님 제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들은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믿음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시며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놀라서 감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잡혀가실 것을 미리 예언하셨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두려워서 묻지도 못했어요.

with
결심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믿음’이라고 말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으니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을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예요. 능력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날마다 나아가는 내가 되기로 결단해요.

with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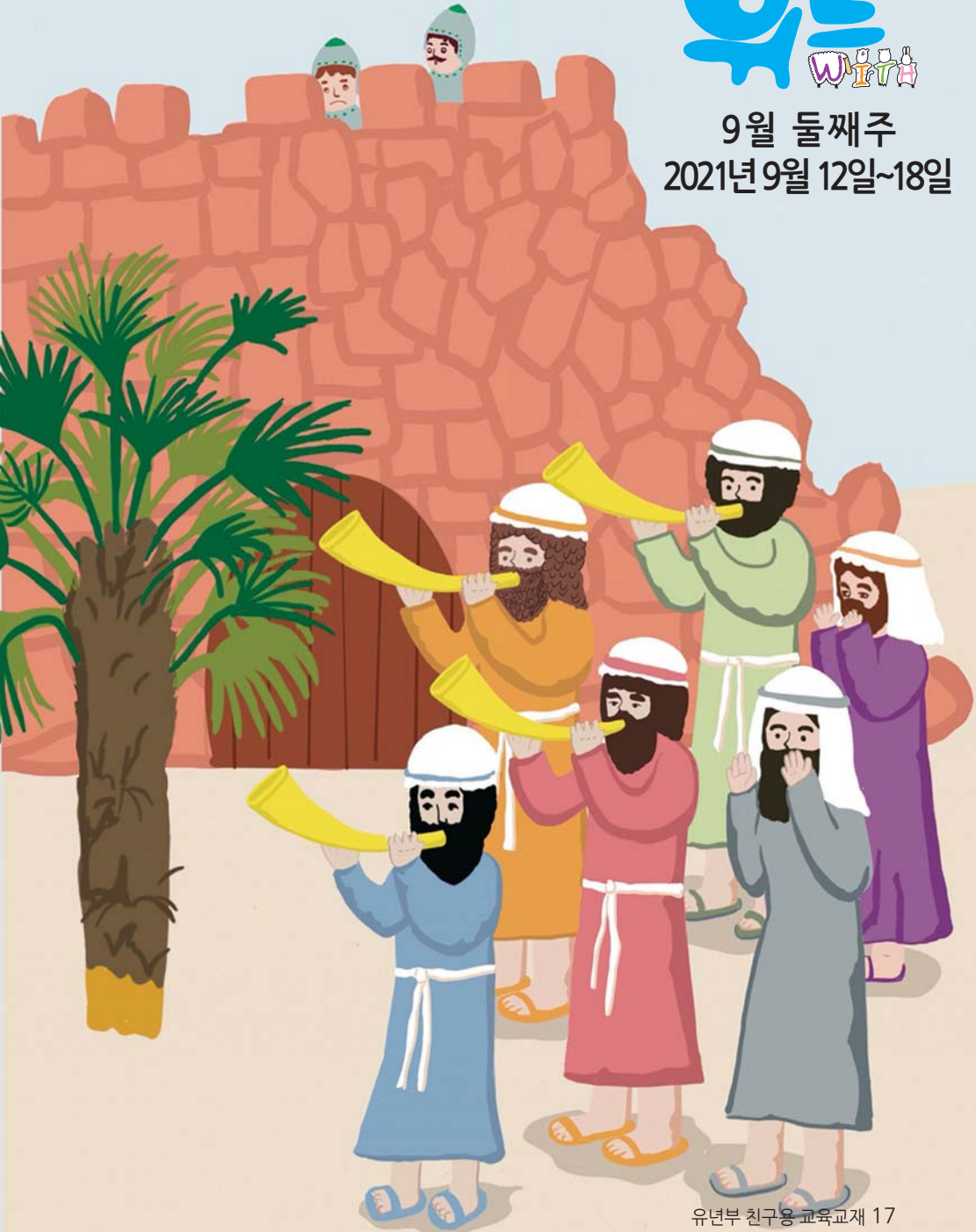
한줄 기도 :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예수님을 굳게 믿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나의 기도 :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 여호수아 1장 7절 -





9월 둘째주
2021년 9월 12일~18일



Memory Time



여리고 정복

둘째주

♥ 주제 : 여호수아

♥ 암송구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 여호수아 6:2

♥ 오늘의 주제 : 여리고 정복 ▷ 여호수아 6:1-21

♥ 오늘의 포인트 :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 성을 정복했어요.

★ 말씀 나눔

1.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된다고 말씀하셨나요?(5절)

제사장들이 **ㄴ** **ㅍ** 을 불고 백성은 큰 **ㅅ** **ㄹ** 로 외치기

2.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몇 번 돌면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셨나요?(15절)

○ ○ 번

★ 교육활동 - “믿음의 나팔”

- 1 위드 활동지에 인쇄된 '믿음의 나팔'을 오려 풀을 붙여 나팔을 만들어요.
- 2 종이컵을 쌓아 여리고 성을 만든 후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 나팔을 불며 여리고 성 주위를 행진해요.
- 3 일곱 바퀴째 나팔을 불며 외친 후에 성을 무너뜨리며 여리고성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해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주제 : 여호수아

♥ **암송구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 여호수아 6:2

♥ **오늘의 포인트** :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 성을 정복했어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여리고 정복 ▷ 여호수아 6:1-21

약속의 땅 가나안 입구에 가로질러 있던 여리고성은 아주 높고 단단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든 언약궤 뒤를 따르며 아무 소리 내지 말고 칠일 동안 성 주위를 돌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곱째 날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일곱 바퀴 돈 후에 나팔을 불고 소리치자 그 성은 와르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은 크게 승리했답니다.

여리고 성을 돌라고 하신 말씀은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쩌면 높고 단단한 성을 보면서도 무기로 싸우거나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지 않고 그저 성 주변을 걷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두렵고 걱정되는 일이었을 것이에요.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투덜대고 싶기도 하고 말이지요.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 때로는 불리하거나 바보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요.



Q 1 우리 가족 각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따르고 있나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려웠던 순간이 있다면 함께 나눠 보세요.

Pray 말씀대로 살아갈 때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늘 말씀을 지키며 승리하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GOD'S TIME 1 둘째주

날짜 : 2021. . .
부모님

with
말씀

누가복음 9:46-50 “누가 큰(위대한) 사람일까?”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46. 제자들 사이에서는,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나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
47. 예수께서 그들 마음 속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48.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49. 요한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50.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영접 : 손님을 맞아서
대접하는 일

지지 :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찬성해 이를
위해 힘을 보태주는 일

with
관찰

1. 제자들은 어떤 문제로 다투었나요? (46절)
 - 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모인 사람들을 먹이는 식량 문제
 - ② 제자들 중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 하는 문제
 - ③ 귀신을 쫓는 문제
 - ④ 제자들 중 누가 가장 작은 사람인가 하는 문제
2.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 가장 어떠한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하셨나요? (48절)

가장 사람

with
생각

어느 날, 제자들 사이에서 그들 중 누가 가장 크고(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인가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어린이를 데려다가 세우시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with
결심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잡혀가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투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미래보다 자신들의 미래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누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리더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것이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힘이 없고, 도움이 필요한 작은 어린이를 섬기는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자신을 드러내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보며 낮아지는 것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사람이 되는 길이에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나를 드러내고, 높아지려고 하기보다, 낮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높이며 사랑하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2 둘째주

날짜: 2021.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누가복음 9:51-62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51.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52.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53.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54.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55.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56. 그리고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57.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58.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59.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60.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61.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62.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장례, 장사: 죽은 사람을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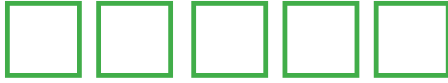
쟁기: 논밭을 가는 농기구

with
관찰

1.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던 곳은 어디 사람의 마을이었나요? (52-53절)



2.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어디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나요? (62절)



with
생각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어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로 들어 가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 사실을 안 제자들은 화가 나서 불을 내려 태워버리자고 하였고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마을로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 겠다고 하자 '여유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예수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자기 아버지 장례를 치른 후,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with
결심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계세요. 예수님의 제자는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위해 노력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둘 곳 없었던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의 편안함을 포기해야 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모습으로 나의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해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어야 해요. 이러한 결단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 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3 둘째주

날짜 : 2021.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누가복음 10:1-7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이 일이 있던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일흔두 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2.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 달라고 청하여라.
3.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4.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5.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6.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7.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삯**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추수 : 가을에 익은

곡식을 거두어들임

삯 : 일한 것에 대한 품값

으로 주는 돈이나 물건

with
관찰

1.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세우시고 몇 명씩 보내셨나요? (1절)

명씩

2. 예수님께서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으나, 무엇이 적다’고 하셨나요?
(2절)

- ① 쟁기 ② 호미 ③ 농부 ④ 일꾼

with
생각

예수님은 70(혹은 72)명의 사람을 세우셔서 2명씩 짝지어 여러 마을로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이것은 마치 어린양을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곳에 보냄과 같다고 하셨지요. 이런 상황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유는 그만큼 추수하는 일, 즉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정말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평화를 기도해주고, 한 집에 머물러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고 명령하셨어요.

with
결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행을 떠나며 필요한 돈, 주머니, 그리고 신발 등 필요한 것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길을 따르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들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 주세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복음을 전하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4 둘째주

날짜 : 2021.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누가복음 10:8-16 “화가 있는 곳.”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 8.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에게 차려 주는 음식을 먹어라.
- 9.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야라.
- 10. 그러나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 거리로 나가서 말하기를,
- 11. 우리 발에 묻은 너희 고을의 먼지를 너희에게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하야라.
- 12.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날에는 소돔이 그 고을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 13. "고라신아, 너에게 화가 있다. 벳새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 14. 그러나 심판 날에는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 15.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 16. 누구든지 너희의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누구든지 너희를 배척하면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배척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을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라고 가르쳐 주셨나요? (9절)

“ 가 너희에게
 왔다.”

2. 말씀을 읽고 빈칸을 채우세요. (16절)

“... 누구든지 너희를 하면,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배척하면, 나를
 을 배척하는 것이다.”

with
생각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며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영접하면 차려 주는 음식을 먹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접하지 않는 고을에 가게 되면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전하라고 하시며, 그곳은 심판 날이 되었을 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제자들의 말을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제자들을 배척하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일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with
결심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을 기뻐하며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병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경험하게 되지요. 나는 복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복음을 기뻐하며 받아들이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할 때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with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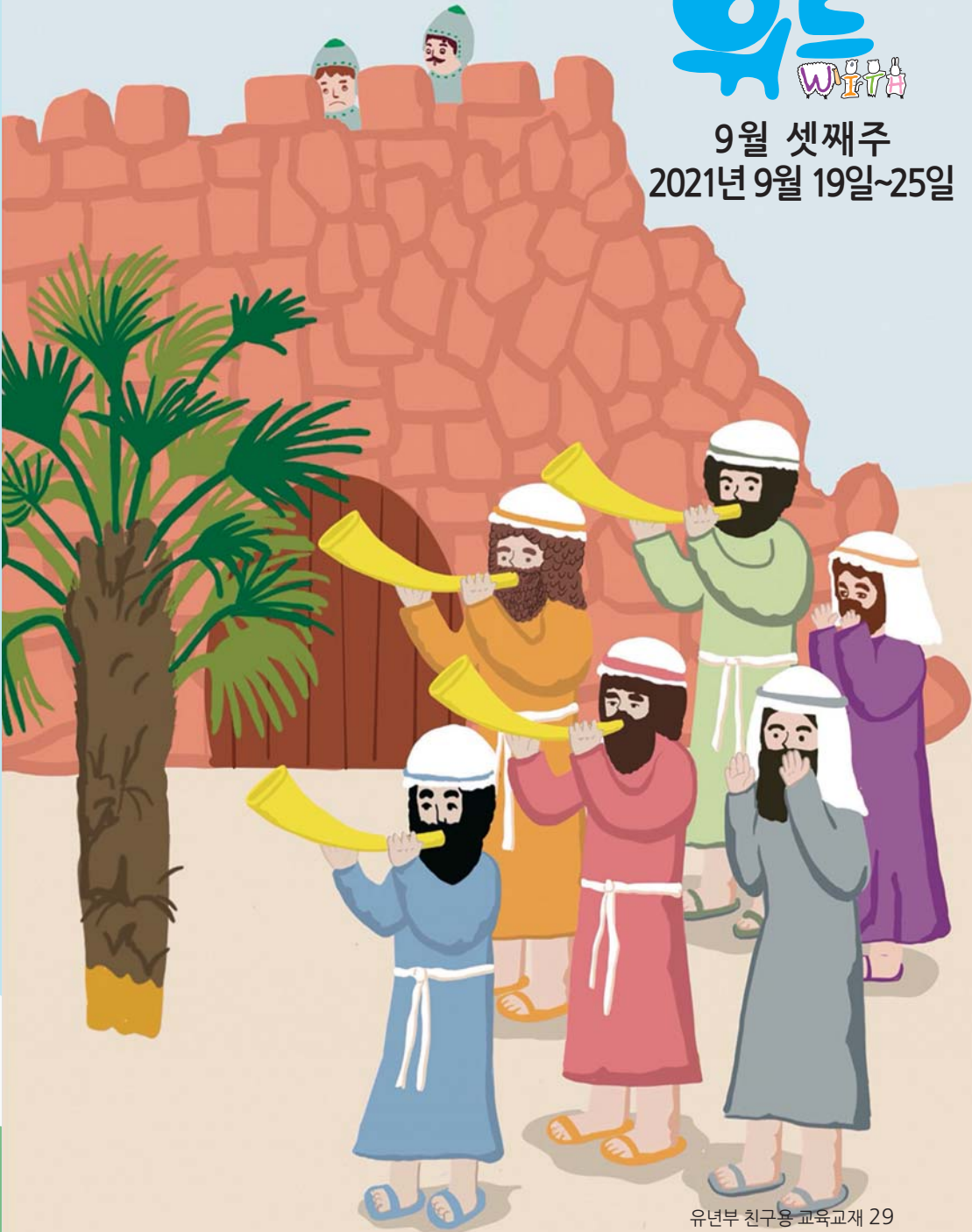
한줄 기도 : 복음을 기뻐하며 실천함으로 구원을 경험하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나의 기도 :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 여호수아 1장 7절 -





9월 셋째주
2021년 9월 19일~25일



Memory Time



아이 성

셋째주

♥ 주제 : 여호수아

♥ 암송구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 7:6

♥ 오늘의 주제 : 아이 성 ▷여호수아 7:1-15

♥ 오늘의 포인트 : 하나님께 감출 수 있는 일은 없어요.

★ 말씀 나눔

① 아이 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1절)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하였으니...”

② 아이 성 전투에서 지자 여호수아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6절)

을 찢고, 에 엎드려, 에 티끌을 뒤집어썼다.

★ 교육활동 - “나의 죄를 고백해요”

아간과 같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 죄가 있는지 생각해보고, 위드 활동지에 적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해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주제 : 여호수아

♥ 암송구절 :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 여호수아 7:6

♥ 오늘의 포인트 : 하나님께 감출 수 있는 일은 없어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아이 성 ▷ 여호수아 7:1-15

여리고 성을 완전히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으로 '아이'라는 땅을 정복하기 위해 병사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말았어요.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하나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전쟁에서 진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에 그곳에 있는 물건들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훔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새벽같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명하시는 것에 따라 부르다 보니 세라 가문의 삽디 가족 중 아간이 최종적으로 뽑혔어요. 그제서야 아간은 탐이 나서 훔친 물건들이 있음을 고백했어요. 아간은 그 죄로 인해 죽고 말았고, 훔친 물건들을 모두 불태우고 나서야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셨어요.

아간은 아마 자기의 죄를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며 탐나는 물건을 훔쳐 집에 숨겨두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똑똑히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감출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정직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Q 1 나만 알고 있는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해요.

Pray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가족이 되게해주세요.

GOD'S TIME 1 셋째주

날짜 : 2021.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누가복음 10:17-24 “제자들의 보고.”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7. 일흔두 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18.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19.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20.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21.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22.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 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아들 밖에는, 그리고 아버지를 계시하여 주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 밖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23.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24.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왕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복종: 다른 사람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서 좇음

세력: 권력이나 기세의 힘

권세: 권력과 세력

with
관찰

1. 제자들이 돌아와 보고하며 무엇을 대면 귀신들도 복종하였다고 했나요? (17절)

의

2. 예수님께서서는 귀신들이 굴복한다고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 하셨나요? 말씀을 읽고 빈 칸을 채워 보세요. (20절)

“너희의 이 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with
생각

전도 여행을 떠났던 70(혹은 72)명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도 복종하였다고’ 보고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많은 예언자와 왕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고,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하였다.”

with
결심

제자들은 귀신도 예수님의 이름에 항복했다고 기쁜 마음으로 보고하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쁨의 근원을 자신들의 성공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에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보다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더 값지고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지혜롭다, 훌륭하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복음을 거절함으로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였고, 구원받을 수 있었지요. 우리가 진심으로 기뻐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 :

GOD'S TIME 2 셋째주

날짜 : 2021.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누가복음 10:25-37 “누가 참 이웃일까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 그가 대답하였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두고 갔다."
-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 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었다.
- 다음 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영생 :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측은하다 : 가엾고 불쌍하다

데나리온 :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나 군인의 하루 임금에 해당한다



with
관찰

1.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하였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25절)

2.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만났던 사람은 누구누구였나요? (31-33절)

- ① 제사장 - 예수님의 제자 - 사마리아 사람
- ② 레위 사람 - 율법 교사 - 바리새파 사람
- ③ 제사장 - 레위 사람 - 사마리아 사람
- ④ 레위 사람 - 제사장 - 갈릴리 사람

with
생각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어떤 사람이 참 이웃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거의 죽게 된 채로 길가에 쓰러져 있었는데 그 자리를 지나간 제사장, 레위 사람은 그를 보고 피해 지나갔지요.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상처를 치료하고 그를 여관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쓰러진 사람을 돌봐달라고 부탁하였어요. 이 이야기를 마친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지 다시 물어보셨어요.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고 말씀하셨어요.

with
결심

율법교사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정확히 알고,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옳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웃이 누구입니까?’하고 다시 물었지요. 당시 존경받던 유대인 지도자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못 본 척 지나쳤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차별했던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 자신의 돈을 들여 살려 주었지요. 강도 만난 사람의 진짜 이웃은 훌륭한 사람,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그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사람이 영생, 즉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어떤 이웃인가요? 나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전하는 내가 되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도와주는 참 이웃이 되게
해 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3 셋째주

날짜 : 2021.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누가복음 10:38-42 “마르다와 마리아.”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접대 : 손님을 맞아서 시중을 들

염려 :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

몹 : 나누어 가지는 것, 각각의 몹

38.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 들였다.
39.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40.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41.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42.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몹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with
관찰

1.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의 집에 가셨나요? (38절)

2. 마르다의 동생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39절)

with
생각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던 중에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자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접대하는 일로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일을 돕지 않고 예수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었어요. 마르다가 화가 나 '예수님 마리아에게 거들어 주라고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with
결심

마르다는 손님을 여러 가지로 대접하고자 마음과 몸이 분주하였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났지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의 섬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또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이에요. 마르다처럼 말씀을 듣는 일보다 다른 일이 염려되어 마음을 빼기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곁에서 말씀을 듣는 일이에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귀하게 여기고 집중하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4 셋째주

날짜 : 2021.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누가복음 11:1-4 “주기도문.”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2.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3.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4.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빛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양식 : 음식

with
관찰

1.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읽고 빈 칸을 채워 보세요. (2-4절)

“...‘아버지, 그 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 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를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빛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합니다. 우리를
 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with
생각

예수님께서 한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자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와서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기도할 때 해야 할 말을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with
결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첫째,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므로 ‘아버지’를 먼저 부르며 기도해요. 둘째, 하나님과 관련된 간구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고백해요. 셋째,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로 몸을 위해 매일 필요한 양식, 마음을 위해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구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해요. 주기도문의 모범을 따라 나의 말로 기도해 보세요.

with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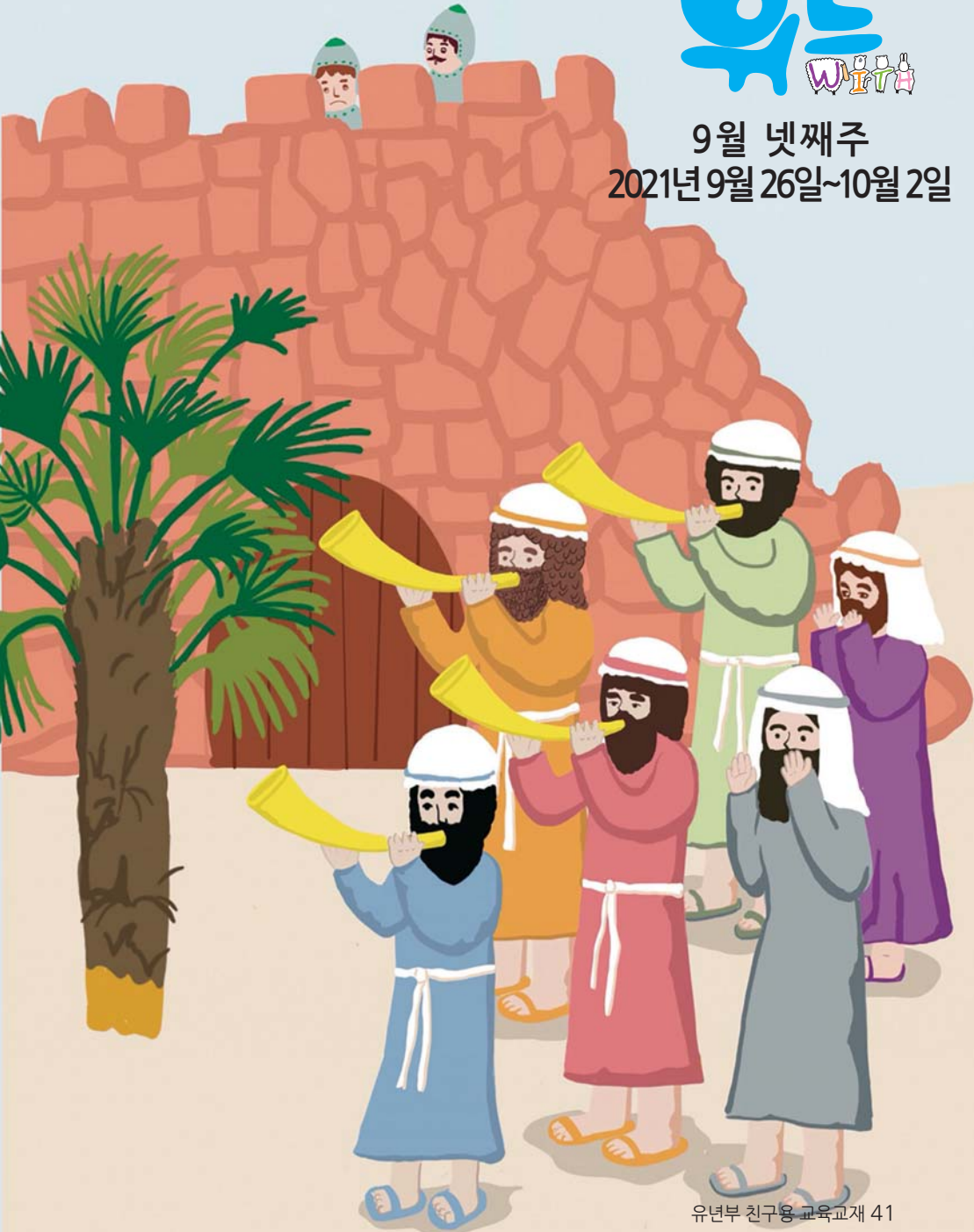
한줄 기도 :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나의 기도 :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 여호수아 1장 7절 -





9월 넷째주
2021년 9월 26일~10월 2일



Memory Time



기브온의 꾀

넷째주

♥ 주제 : 여호수아

♥ 암송구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와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길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호수아 9:27

♥ 오늘의 주제 : 기브온의 꾀와 이스라엘의 잘못 ▷여호수아 9:1-2

♥ 오늘의 포인트 :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 말씀 나눔

① 기브온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나요? (4-5절)

헤어진 **ㅈ** **ㄷ**, 헤어지고 찢어진 포도주 **ㅂ** **ㄷ**,

낡아서 기운 **人**, 낡은 **○**

② 불쌍해 보이는 무리의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15절)

“그들에게 **□人** 하였더라”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넛째주

- ♥ 주제 : 여호수아
- ♥ 암송구절 :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때며 물을 길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 여호수아 9:27
- ♥ 오늘의 포인트 :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기브온의 꾀와 이스라엘의 잘못 ▷ 여호수아 9:1-9:27

어느 날 가나안 족속 중 하나인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내어 가나안 민족이 아닌 먼 곳에서 온 사람처럼 꾸미고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왔어요. 그들은 불쌍한 모습으로 찾아와 이스라엘 민족을 속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의 조약을 맺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이 가나안 민족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기브온 사람들을 멀어야 했지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기브온 주민들을 종으로 삼고 특별히 제단에서 봉사하는 일을 맡겼지요. 그들은 오랫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남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하지만 실수를 알게 되었을 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는 것을 선택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도 여호수아와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잊거나 나의 뜻대로 판단하는 실수를 하기도 해요. 실수나 잘못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는 친구들이 되어요.



토론하기

Q 1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의 뜻대로 행동해 실수했던 경험이 있나요?

Pray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이 주신 지혜로 행동하는 우리 가족이 되게 도와주세요.

GOD'S TIME 1

넷째주

날짜: 2021.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누가복음 11:5-13 “구하고, 찾고, 두드려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5.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세 개를 **꾸어 주게**.'
6.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할 때에,
7.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8.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9.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10.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11.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12.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13.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꾸어 주다: 빌려 주다

with
관찰

1. 말씀을 읽고 빈 칸을 채우세요. (10절)

“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사람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2.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나요? (13절)

with
생각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밤중에 찾아와서 빵 3개를 달라고 부탁하면, 모른 척하며 거절 하겠느냐? 아마도 간절한 그의 부탁 때 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라고 말하시며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 주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27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며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 구하면 너희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with
결심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주시고 난 다음, 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교훈을 ‘밤중에 찾아온 친구’,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주시며, 거기에 더해 가장 좋은 ‘성령님’, 즉 하나님 자신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에요. 나의 기도제목은 무엇인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간절한 자세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 하시고, 더불어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선물로 허락해 주실 거예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2

넷째주

날짜 : 2021.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누가복음 11:14-23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곳에!”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4. 예수께서 귀신을 하나 내쫓으셨는데, 그것은 **병어리** 귀신이였다. 그 귀신이 나가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놀랐다.
15.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가 귀신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16.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에서 내리는 표징을 보여 달라고 그에게 요구하였다.
17.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망하고, 또 가정도 서로 싸우면 무너진다.
18. 그러니 사탄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너희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는데,
19.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면 너희의 추종자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는 말이나?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20.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21. 힘센 사람이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그의 소유는 안전하다.
22. 그러나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를 이기면, 그가 의지하는 **무장**을 모두 **해제**시키고, 자기가 **노략**한 것을 나누어 준다.
23.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사람은 헤치는 사람이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병어리 : 말을 못하는 사람

무장 : 전투에 필요한 장비

해제 : 장비한 것을 풀어 없앴

노략 : 강제로 빼앗은 것

with
관찰

1.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에서 내리는 무엇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나요? (16절)

- ① 비
- ② 눈
- ③ 우박
- ④ 표징

2. 말씀 읽고 빈 칸을 채우세요. (23절)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다.”

with
생각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 사람이 말을 할 수 있게 되자 사람들이 이를 보고 놀랍게 여겼어요. 이런 놀라운 표징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시험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징을 보여 달라고 구하기도 하였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귀신을 쫓아내셨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모이지 않는 사람은 헤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with
결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귀신을 내쫓으신 것은 이미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기적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예요. 나의 마음에 의심과 불평이 가득하다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 나를 다시 살펴봐야 해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어떤 기적이 일어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상의 삶 자체가 놀라운 표적이 되기 때문이에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나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전하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3

넷째주

날짜 : 2021.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누가복음 11:24-28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24.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하면, 그 귀신은 실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맨다. 그러나 그 귀신은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한다.
25. 그런데 와서 보니, 집은 말끔히 치워져 있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26. 그래서 그 귀신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또 귀신 일곱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27.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무리 가운데서 한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을 뱀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28.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태 : 태아를 둘러싸고 있는 배

with
관찰

1.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여자가 당신을 뺨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참으로 '무엇'이 있다고 말했나요? (27절)



2. 예수님께서 여자의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28절)

- ①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 ② 귀신을 쫓아낸 사람
- ③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④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with
생각

예수님께서 악한 귀신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어요.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자신이 쉴 곳을 찾느라고 헤매다가 갈 곳이 없어 다시 원래 있었던 사람에게로 돌아갔어요. 그러자 그 사람의 마음의 방이 비어져 있으나 다른 것이 채워져 있지 않아 귀신은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와서 자리를 잡고 살았고, 그 사람은 더 비참해 졌다는 비유였어요.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한 여자가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가 복이 있다고 말하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with
결심

예수님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귀신이 쫓아내짐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완성이 아님을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셨어요. 회개하고 마음을 청소하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안을 채워야 하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 것일까요? 답은 그 다음 여자와의 대화에 나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참된 복이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가득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회개 하고 죄로 가득했던 마음을 비운 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실천으로 가득 채워야 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 복을 누리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4 넷째주

날짜: 2021.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누가복음 11:29-36 “온 몸을 밝게 하는 것.”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29. 우리가 모여들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 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30.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과 같이, 인자 곧 나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31.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32.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33. "아무도 등불을 켜서 **움** 속에나 말 아래에 놓지 않고, **등경** 위에 놓아 두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34. 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네 눈이 **성하면**, 네 온 몸도 밝을 것이요, 네 눈이 성하지 못하면, 네 몸도 어두울 것이다.
35.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아라.
36. 네 온 몸이 밝아서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마치 등불이 그 빛으로 너를 환하게 비출 때와 같이, 네 몸은 온전히 밝을 것이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선포: 세상에 널리 알림

움: 겨울에 화초나 채소를 넣어 두는 그릇

등경: 등잔을 걸어 놓는 기구

성하다: 건강하다, 멀쩡하다

with
관찰

1. 예수님께서 이 세대의 사람들은 누구의 표징 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나요? (29절)



2.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몸의 등불이며, 온 몸을 밝게 하는 몸의 부위는 어디인가요?

- ① 눈
- ② 코
- ③ 입
- ④ 귀

with
생각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어요. 아픈 사람의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직접 보았으면서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또 다른 표적을 요구했던 것이예요. 이에 예수님은 그런 무리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것이 없다고 하셨어요. 요나의 표적은 니느웨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어 구원을 받은 표적을 말해요. 이어서 예수님은 등불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빛은 이미 누구에게나 볼 수 있도록 밝게 펼쳐져 있으나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with
결심

예수님은 자신의 하시는 일을 집을 들어가는 자를 비추는 등불에 비유하었어요. 등경위에 놓여진 등불은 환하게 비추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빛을 보지 못했다면 그것은 빛의 문제가 아니라 눈의 문제이지요. 악한(하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듣지 않는) 세대가 계속해서 놀라운 기적인, 표적을 보여 달라고 구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영적인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는 내 존재 전체의 눈이 되어요. 불안, 걱정, 근심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든지 되돌아보세요.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와 불안, 걱정에서 벗어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환히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볼 수 있어야 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나의 기도 :

Morning Time

가족과 함께하는

1. 잠들어 있는 친구의 팔다리를 가볍게 마사지하며 깨워주세요.
2. 친구가 어느 정도 잠에서 깨고 나면 다음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3. 말씀을 다 읽은 뒤, 친구를 포근하게 안아주며 이야기해주세요.



말씀 <시편 15편, 새번역>

1.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2.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3.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4.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5.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OO(아)야, 잘 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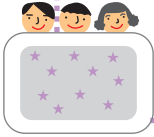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5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 날마다 정직하게 살고, 옳은 일을 행하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하지 않고 친구들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며 약속을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복을 받게 된다고 해. 우리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루에 한 가지씩 삶에서 실천해 보면 어떨까? 하나씩 실천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아름답게 변화 될거야. 오늘은 그 시작으로 정직한 하루를 보내보자. 우리 OO(이) 파이팅!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삶의 자세를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며 날마다 정직하게, 바르게,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족과 함께하는

1. 친구가 잠을 청하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함께 해주세요.
2. 친구에게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물어봐주세요.
3. 자리에 누워서, 친구에게 찬양을 들려/읽어 주세요.
4. 친구를 꼭 안아주며 기도해주세요.



찬양 <흰 눈처럼 양털처럼>

- 파이디온 선교회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 하세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사랑하는 OO(아)야, 오늘 하루는 어땠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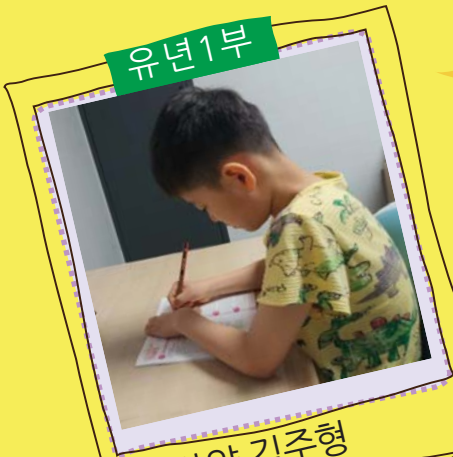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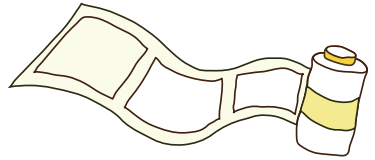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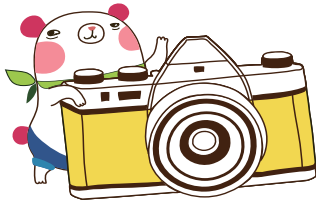
우리는 하루에 셀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짓곤 해. 나를 드러내고 잘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친구를 미워하기도 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잊고 옳지 않은 행동을 스스럼없이 할 때도 있어.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짓고 나면 어떠한 기분이 들었니? (대답을 듣고) 맞아. 마음 한 구석이 불편해지지. 그것 때문에 아빠나 엄마에게 말을 하기 어려워지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힘들어지기도 해. 오늘 부른 찬양은 바로 그럴 때 “두려워 말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 숨김없이 하나님께 다 말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평안하게 해 주신대. 죄를 짓지 않도록 애쓰는 삶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죄를 지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내어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다. 함께 기도하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찬양을 통해 회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죄를 지어 마음이 불편하고, 두려워질 때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의 찬양처럼 하나님께 숨김없이 말씀드리고 용서받는 우리 OO(이)와, 우리 가족이 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년부 PHOTO



유년1부

1-1찬양 김주형



유년1부

1-1 이도재



유년1부

1-1 이정민



유년1부

1-5 이주진



9월

제목 : 거인이면 뭐 어때
글 / 댄 야카리노
옮김 / 유수현
그림 / 댄 야카리노
출판사 / 소원나무



신비 도시에 사는 ‘거인 테스’에게는 아주 커다란 고민이 있어요. 테스는 자신이 너무 커서 아무런 쓸모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발을 잘못 디터 툭 하면 물건을 망가뜨리고, 음식을 몽땅 먹어 치워도 여전히 배가 고프고 자신의 모습이 테스는 싫었어요. “내가 너무 커서 그런 거야,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똑같이 작아지고 싶어!” 테스는 간절히 바랐지만 결코 똑같아질 수 없었죠. 하지만 테스는 스모키를 만나면서 자신감을 찾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된답니다. 스모키 발에 박힌 날카롭고도 큰 가시를 뽑아내고, 다친 곳을 치료하면서 커다란 몸집을 가진 자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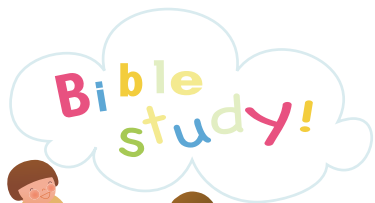
테스가 만약 다른 친구들처럼 작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스모키 발에 박힌 큰 가시를 단번에 빼지 못했을 거예요. 테스가 거인이었기 때문에 스모키를 도울 수 있었던 거지요. 사실 테스가 하는 ‘거대한 고민’은 누구나 한번쯤 하는 고민이에요. 키가 작아서 혹은 커서, 뚱뚱해서 혹은 말라서, 아니면 손이 못생겨서 다른 사람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요. 남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단점만을 찾아보는 일이 누구에게나 종종 생깁니다. 하지만 테스가 거인이라는 단점 속에서 멋진 장점을 찾아낸 것처럼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장점이 있지요. 테스와 함께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인정하는 방법을 찾아보아요. 분명 자존감이 쑥쑥 올라갈 거예요!

예수님께서서는 돌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키가 작다고 놀리지 않고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진짜 모습을 바라보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나 자신과 다른 친구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품어주길 바라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 여호수아 1장 7절 -



9월 STICKER



유년()부, ()학년, ()반

이름 :



	QT	QT	QT	QT	말씀 암송	모범
1주						
2주						
3주						
4주						
5주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여호수아 1:7)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